

시민교육, 시민의식 그리고 난민

전문가 칼럼 - 시민교육

양훈도

후마니타스칼리지



즐거보는 케이블 채널에서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 광고가 방영될 때마다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수전 선택이 이미 오래 전에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타인의 고통’에 오히려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감상적인 이미지도 그렇거니와, 세계 유수의 구호단체들이 줄지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연달아 내보내는 탓이다. 차별성 전혀 없는 저 광고들의 게재료는 얼마일까? 며칠 전 어느 인권 활동가로부터 구호 모금이 저들 단체의 주요한 수입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비통해졌다. 감성의 신자유주의.

마이클 애플의 말마따나 “교육은 이 비극적인 시대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회적 비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는 묻는다.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자신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 이미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는 난관을 강하게 암시한다. 서론에서부터 성공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슬쩍 판정을 피우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뜻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나? 사회는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같은 한국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를 논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금같은 한국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복잡한 심경으로 참석한 어느 시민교육 포럼에서 기초 강연을 듣다가 낭패감과 존경심이라는 양가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참 오랜만이다. 교육학자인 강연자의 문제의식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가’였다. 답을 구하기 위해 그는 먼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시민의식의 윤곽을 그린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



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지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좋은 시민인 것이다.”

시비를 걸만한 대목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패감이 든 이유는 뻔하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의 육성’이 교육의 목적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정말 민주시민이 길러지고 있는가? 일상의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나는 과연 저런 시민을 단 한 명이라도 교육할 자신이 있는가? 목표는 완벽할수록 아득해지는 법이다. 반면, 맹세코 반어(反語) 뉘앙스를 조금도 섞지 않고 말하거니와 강연자에게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위로와 희망도 주지 못하는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렇듯 진지하게, 집요하게 시민의식과 시민교육의 의미와 과제를 파고들어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람에 대한 지식이건, 사물과 사건에 대한 지식이건 제대로 된 앎은 자신 주변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 학생들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 않다. 시선 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밀어내기, 찍어내기 교육-기계를 통과한 학생들 대다수는 세계로 진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세계도 잘 모르고, 지역은 더더욱 모르는, 이 ‘세계시민’도 ‘지역시민’도 아닌 ‘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세계시민’도 ‘지역시민’도 아닌 ‘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에이란 쿠르디란 이름을 기억하지는지 모르겠다. 지난 9월초 터키 해변에서 숨진 세 살배기 시리아 어린이 말이다. 시리아 ‘난민’ 문제를 단순히 세계 여론의 초점으로 올려놓았던 이 꼬마는 벌써 잊혀졌다. 11월13일 파리 테러의 영향도 크지만, 애초부터 에이란 쿠르디 역시 국제구호기관들의 아프리카 아동 후원 광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만 소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두에 언급한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이 ‘난민’이라는 용어에 정색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애플은 ‘난민’이라는 용어가 이들의 익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주도 살인과 공적 정책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공화국의 시민들’이라는 점을 은폐한다고 지적한다. ‘난민’은 원인이 되는 갈등을 ‘청소’하는 정치적 용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민의식을 제대로 기르고자 한다면, 시민을 난민으로 몰아붙이는 (국제)정치학의 메커니즘과 난민은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인류학자 조한혜정의 지적처럼, ‘난민-되기’를 실천하는 것이 암담한 미래에 대응하는 현명한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난민-되기’에서 하이픈을 아예 빼든가 자기 자신이 난민임을 자각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길일 수 있다. 우리가 에이란 쿠르디처럼 재화(災禍)를 피해 고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처럼 굶주리는 형편은 면했는지 몰라도, 37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전 사망자 숫자에 버금가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난민이라 불러 모자람이 없다. 애플이 강조해마지 않는 사랑과 돌봄과 연대의 노동을 일깨우는 일도, 일상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교육학자가 지향하는 지역사회형 시민 교육도, 난민-되기 혹은 난민이라는 자각부터 먼저 깨우치고 볼 일 아닌가.

참여마당

권순학
(식품생명공학 2015)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이야기는 매학기마다 시민교육 활동으로 꾸준히 다뤄졌던 국내 교내 청소노동자의 처우와 고용개선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학교 청소노동자는 각 건물별로 1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도서관과 국제학관을 담당하는 15명을 제외하면 모두 용역계약직이다. 용역과 정규직은 고용 불안정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도서관처럼 교직원 식비처리가 되는 곳이 있는 반면 단과대학들의 경우 식비가 한 달에 6만원으로 책정되어있어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많다. 월급에 있어서도 큰 차등이 존재한다. 정규직은 매 년마다 호봉이 쌓이고 월차, 연차, 보험비용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반면, 용역계약직은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데다, 월차쓰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복직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친 몸을 누일 휴게실만 해도 냉방과 통풍이 잘 안되고, 냉장고가 없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처음에는 다른 학교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학교에 건의하고자 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는 왜 청소노동자노조가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었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20살 대학생에게 그리 녹록한 곳만은 아니었다. 이화여대에서는 집 주소까지 물었고 건국대에서는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교라고해서 다를 것은 없었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학교가 용역업체를 쓰고 있었고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련한 질문에서는 다들 짜기라도 한 듯 ‘학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연세대, 중앙대, 건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인하대등 여러 학교를 조사해보았지만 벤치마킹을 할 만한 학교는 없었고, 용역업체들은 전화를 곧바로 끊어버리고는 했다.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서야한다는 대학생의 책임감은 주인 잃은 짐으로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우리학교에서 자회사사를 설립하여 계약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장방문시간을 조율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뵈었을 때에 ‘노조가 설립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청소노동자 아주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저희는 그저 들쭉시키고만 다녔지, 결국은 이렇게 어른들이 해결해주셨네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 아주머니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셨다.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찾아와서 학교에 건의도 해주고, 그 덕에 팻말도 바뀌고 했어요. 우리를 생각해주셔 고맙지만 하지.”

이 말을 들으니 죄송하면서도, 문득 그게 대학생의 진짜 역할이자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불합리한 점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 정치적 시선을 배제하고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쳐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사회를 바꿀 힘은 없어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에 던져지는 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자회사 설립은 우리학교와 희망제작소가 MOU를 체결한 단계다. 국제캠퍼스의 노조는 조성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장칼라스 재판에서 종교의 불관용을 목도한 볼테르 역시 『철학사전』에서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 형제를 박해하는 사람은 괴물”이라며 이성적 판단에 따른 관용을 주장했다.

이렇듯 근대에 탄생한 관용의 역사 기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소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지자들이 말한 관용이란 무조건적인 용서나 이해가 아닌 이성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서로에게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이다. 볼테르와 함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공유했던 관용의 정신 밑바탕은 종교적 차원과 특정 계층이 베푸는 아량이 아닌 순전한 개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관용이 개인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떠한 관용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무제한적 관용과 무제한적 자유는 백퍼센트 일치하기 때문이다. 무제한의 관용이 구축을 낳는 모순을 그냥 볼 수 없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공유했던 관용의 정신 밑바탕은 종교적 차원과 특정 계층이 베푸는 아량이 아닌 순전한 개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강자가 약자를 제지하려는 시도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는 소수민족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만다.

딜레마에 봉착한 현대인들은 사회악과 인류에 대한 범죄에까지 관용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진지한 검토를 시작한다. 20세기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관용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관용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관용정신 자체가 파멸될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볼 때 관용의 정신이 현실 삶에 빠르게 정착되기 위한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윈화 된 오늘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관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갈등은 물론 이념적, 인종적, 문화적 갈등 등에서 요청되는 정신이 관용이다. 계급, 종교, 문화, 이데올로기, 피부색 등을 가진 사람들과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넘어서 다양성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나아가 나와 다른 그들이 우리가 되어 공존할 수 있는 관용의 핵심은 상호 호혜적이라야 가능하다. 상호 호혜란 진정한 관용을 베푸는 이타심이다. 또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면 가능하지 않을가.

남녀 공감 심통 ➡ 젠더역량강화 워크숍

학생지원처 여학생과에서는 '2015 고교교육정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력과 리더십을 향상하도록 돕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제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리더십 향상	내용 - 자기개념의 형성 과정 - 섹스 vs 젠더 - 성인지리더십이란? - 여성 및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편견 - 성인지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 인식의 확장 깨기 - 공감능력 향상시키기 - 성평등 실천방안 공유하기
일시 : 2015.12.22.(화) 13시~18시(석식포함)	
장소 : 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 중세미나실	
대상 : 남·녀 학부 재학생 15명 내외	
[참가자의 50%이상은 신입생(1학년)]	
강사 : 유정은 [젠더선행교육원 원장]	

접수기간 : 2015.11.09.(월) ~ 12.18.(금)

신청방법 : 여학생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여학생과 홈페이지 : <http://web.khu.ac.kr/~wss0208/>

문의 : Tel. 02-961-0208 e-mail - khsa0043@khu.ac.kr